공공시설 이전 부지 숲 조성 광주 도심 '녹색 공간' 늘린다

광주시가 도심 공공시설 이전 터를 공원으로 꾸미고 광주공원 등 기존 공원을 확대, 공원 면적을 대폭 늘려가기로 했다. 도시숲 조성도 크게 확대된다. 광주시는 17일 "앞으로 학교 이전부지를 포함해 사무실을 옮겨가는 도심 공공시설 이전 대상을 전면 조사, 교육청 및 관련 기관 등과 면밀한 협의를 거쳐 숲이 우거진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공원 1만3천㎡ 등 기존 공원 면적 확대

'1천만그루 나무심기' 녹화 사업도 지속 추진

이같은 '도심 공공시설 이전 부지 공원화 사업'은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녹색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광주공원 면적도 대폭 확대한다. 우선 현 구동체육관 앞 부지를 광주천과 연계해 164억원을 들여 광장 개념의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공원(5천547㎡)을 조성한다. 광주향교 인근에는 36억원을 투입해 아시아전통문화공원(3천187㎡)을 만들고, 광주공원 주변 4천8㎡를 추가로 매입, 117억원을 들여 공원으로 꾸민다. 공사가 완료되면 광주공원 면적은 현 4만3천950㎡에서 5만6천692㎡로 늘어난다.

아울러 공원 지정 후 사업이 본격 추진되지 않고 있는 우산공원과 본촌공원, 중외공원 내 용봉제 주변, 영산강 대상공원 등 미조성 공원들도 조기에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우산공원은 동문로변에 이어 시립도서관쪽 공사가 진행중이며, 나머지는 내년에 본격 추진된다.

시는 2000년 이후 옛 폐선철도 부지, 한국은행, 전남도지사 공관, 경찰청 차고지, 국정원 부지, 국군통합병원, 기무사 부대 등 7곳의 도심 공공시설 이전 부지에 공원을 조성해왔다.

이 가운데 한국은행과 국정원, 도지사 공관, 경찰청 차고지 등 4곳은 공원 조성을 완료했고, 옛 폐선부지는 조선대에서 동성중까지 일부를 시민 이용 시설로 개방했다. 이어 광주역~조선대 구간은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옛 국군통합병원과 기무사 부대 이전 부지는 내년부터 토지 매입에 나설 방침이다.

총 사업비 2천63억원이 투입되는 이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공원 면적이 65만479㎡(조성 완료 16만3천476㎡, 신규 48만6913㎡)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시의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은 법정 기준인 6㎡이상의 2배가 넘는 13.34㎡에 이른다.

시는 공원 조성과 병행해 2005년부터 10년동안 푸른 광주가꾸기를 위해 '1천만그루 나무심기'를 추진, 현재까지 565만그루를 심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숲 조성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내년부터 상무지구 간선·지선·보행자 도로 숲 조성,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등 도시숲 가꾸기와 광역위생매립장 수목원, 영산강변 둑방 생태숲 조성 등 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 신규 공원조성 사업 대상지

공원별	면적(㎡)	사업비(백만원)	비고
우산공원	77,330	3,970	
푸른길공원	50,415	5,837	옛 국정원
화정공원	84,595	50,000	옛 국군통합병원
5·18역사공원	38,459	17,900	옛 기무부대
전평제근린공원	44,000	500	일부조성
영산강대상공원	31,000	10,800	1단계 조성사업(구산지구)
본촌근린공원	105,512	18,900	
중외공원내용봉제주변 공원	42,860	10,000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 공원	5,547	16,400	
아시아전통문화공원	3,187	3,600	
광주공원주변 정비확장사업	4,008	11,700	
계(11개소)	486,913	149,607	

광주여성희망포럼 창립 (사)광주여성희망포럼(공동위원장 박광태 광주시장)이 17일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추진위원회 위촉식과 창립식을 갖고 전문 여성 네트워크 구축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창립식에서는 김경신 전남대 생활환경복지학부 교수가 공동위원장에 조학행 조선대 교수, 김향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장이 공동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인터뷰 20면〉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노인일자리 박람회

오늘 김대중컨벤션센터

'2008 노인일자리 박람회'가 18일 오전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시, 광주지방노동청 등이 참여, 노인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창업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부터 은퇴자 12명으로 '노인일자리 개발사업단'을 구성해 기업체·기관·단체 등을 방문해 108개 기업체 등에서 모두 2천여개 일자리를 발굴했다.

문의 062-613-3270.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남구보건소 진료실 진료장비 대폭 보강

광주 남구보건소가 최근 진료실 설비를 대폭 확충·보강하는 등 의료서비스 개선에 나섰다.

17일 남구에 따르면 최근 사업비 3천500만원을 들여 보건소 한방진료실 내 자율신경균형 검사기를 보강하고 자동신장계 측정기, 비만도계 측정기 등 6종의 장비를 새로 들여왔다.

이에 따라 체지방 및 심혈관계 질환의 분석 등이 가능해졌다. 또 이들 장비는 휴대가 가능해 이동순회진료 및 출장진료 등에도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는 또 보건소 진료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동신대 한방병원 등 민간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며 검진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하드웨어 분야 보건행정 서비스 개선에도 나섰다.

/강필상기자 kps@

광주시 2008 대한민국 지역경쟁력 평가 대상

비교우위 부문 최고 등급

광주시가 '2008 대한민국 지역경쟁력 평가'에서 비교우위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이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경쟁력 평가에서 광주시는 행.재정 및 공공자본, 인적자원, 생태.안전, 인프라 및 생산성, 세계화 등 5개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인정받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차 통계지표 평가, 2차 공적서 평가, 3차 주민 만족도 조사 등 다면 평가를 종합해 각 지자체의 경쟁력을 객관적인 지수로 계량화한 이번 평가에서 광주시는 비교우위 부문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트리플 A'를 받았다.

광주시는 1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전국 최초 탄소은행 운영 등을 통한 생태·안전 시스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인프라 및 생산성 향상 부문에서 호평을 받았다.

또 세계화 부문에서 2009 광주세계광엑스포, 국제문화창의산업전 등 국제행사 기획과 문화콘텐츠 개발로 지역 특화 브랜드를 육성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역경쟁력 평가 종합 부문 대상은 서울시와 울산시가, 비교우위 부문 대상은 광주시와 부산시가 공동 수상했으며 이날 오전 서울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08 지역경쟁력평가 인증식'에서 대상 인증을 받았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금강바이크코리아, 120억 투자 광주에 둥지 평동산단에 생산공장

자전거 관련 국제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이 광주에 생산기지를 마련, 내년말부터 본격 제품을 생산한다.

광주시는 17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서울 소재 자전거 전문제조업체인 금강바이크코리아(주)와 120억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금강바이크코리아사는 광주 평동산단 2차단지 2공구 4만2천728㎡ 부지에 본사를 이전하고 자전거와 크랭크(회전 운동을 하는 축에 연결된 자전거 부속품) 생산공장을 설립한다. 금강바이크코리아사는 자전거 패들과 연결된 크랭크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하이퍼 크랭크로드' 기술을 개발, 국제특허를 얻은 자전거 전문생산업체다. '하이퍼 크랭크로드'는 크랭크의 끝 모양을 종전 직선에서 곡선 형태로 변형한 것으로 기존 자전거에 비해 회전력을 25% 이상 끌어올리는 기술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